

《자존심》

# 살아있는 모두는 자존심이 있다

글 김상욱(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1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해 들어 세 번째, 연말마다 ‘올해의 예술상’을 선정하였다. 한 해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예술 장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한 편 뽑아 격려하며, 우리 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해 동화부문에 선정된 작품은 김남중의 《자존심》이었다. 까다로운 예선과 본선의 심의를 거치며, 그 해에 출판된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작가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아동문학 부문에서 작품에 주는 시상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 염려될 지경이다. 상금 또한 예상의로 적지 않다. 물론 인세를 앞질러 지불한다는 선인세의 의미가 크지만, 일이천 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그러나 창작 이들 시상은 공모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판사가 출판을 위해 원고를 입도선매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크게 보아 창작을 격려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없지는 않겠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창작의 과정에서 출판사의 지향이나 심사위원들의 잣대에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당 모든 예술의 출발점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있음은 굳이 재론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자본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예술이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술이 자본에 복속되지 않는 최후의 미담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술은 언제나 기존의 통념이나 경계를 허물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한다. 따라서 어떤 척도가 작가의 창작 실천에 앞서 존재하고, 그 척도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작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작품이 온전한 예술적 성취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등단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한 몫을 해 왔던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우리 문단에 끼치고 있는 또 다른 폐해를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예술상’ 처럼 작품이 출판된 다음에 특정 출판사의 지향에 얽매이지 않은 심사의 과정을 거친 상이 더한층 소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창작이 이

미 완료되어 출판된 다음, 작품을 앞에 두고 소박한 독자와 전문적인 비평가가 나란히 이마를 맞댄 채, 작품의 성취를 격려하고 작품의 한계를 꼼꼼히 따져 묻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사후의 평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아동문학은 작품 그 자체로 성취를 말해야 한다는 예술의 원칙에 한결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2 작품에 대한 사후 평가라는 원칙을 생각할 때, 김남중의 《자존심》이 올해의 예술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나미의 《걱정쟁이 열세 살》이나 황선미의 《처음 가진 열쇠》, 배우안의 《초정리 편지》 등도 지난 해 출판된 작품으로 충분히 뛰어난 작품이며 상을 받아도 아쉽지 않았겠지만, 《자존심》 또한 자신만의 미덕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남중의 《자존심》은 모두 7편의 단편을 묶은 단편집이다. 따로따로 발표한 작품이 아니라, 한꺼번에 작품집으로 묶여 나온 것으로 미루어보아, 단단히 버린 뒤끝에 한꺼번에 써 내려간 작품이다. 그만큼 작품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이 선명하고, 묘사의 밀도 또한 들쭉날쭉하지 않고 고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머리말은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자존심이 있다’라는 제목 아래,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넓게 보면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는 거니까요. 마치 부메랑 처럼요. 누구는 자존심이 세고 누구는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 있는 건 모두 자존심이 있어요.”라고 밝혀두고 있다. 이 모두의 진술은 작품을 관통하는 중심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작품들은 한결 같이 주인공과 지속적으로 혹은 어느 특정한 계기 속에서 관계를 맺었던 동물들이 지니고 있었던 자존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주요한 이야기의 열개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역설적으로 주인공인 어린 인물이 ‘다른 이를 존중’하지 않았던 마음, ‘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존심》  
김남중 지음 | 이형진 그림 | 창비 | 171쪽 | 값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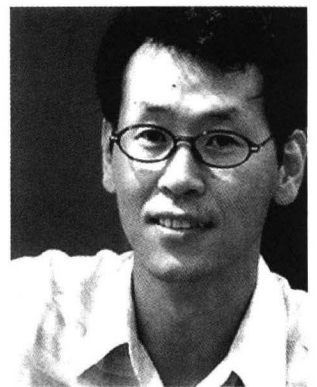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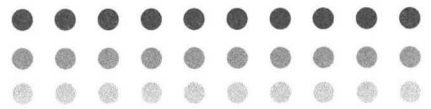
기억을 환기시킨다. 이 두 축을 따라가는 작품집의 모든 이야기는 그 자체로 타자의 자존심을 찾아가는 경이로운 발견의 과정이며, 자신만의 자존심에 매달렸던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무거운 자책의 과정이기도 하다.

예컨대 첫 번째 실린 작품인 〈나를 싫어한 진돗개〉는 진돗개 한 마리를 집에 들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민호는 강아지 진돗개를 원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데려온 진돗개는 다른 집에서 키우던 개로 '중풍 맞아서 몸 반쪽을 못' 쓰는 늙고 병든 개일 따름이다. 더욱이 이 개는 민호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 민호가 자신을 마뜩치 않게 여기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며, 따라서 끝까지 으르렁거리를 멈추지 않는다. 결국 민호는 이 늙고 냄새나는 개를 나 몰라라 돌보지 않고, 그 결과 개와 민호는 비를 심하게 맞아 감기를 앓는다. 그런데 함께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비로소 늙고 병든 개의 눈을 오래 마주 바라볼 기회를 갖게 되고, 그 눈을 보며 '뭔가 부탁을 하려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친구 눈'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싸우고 나서 사람인 나보다 먼저 화해를 청'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결국 진돗개는 죽고, 민호는 그 마지막의 죽어가는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에야 강아지를 기를 수 있으리라 다짐한다.

이처럼 이 작품집에 실린 편편의 작품들은 결코 어느 한 편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동물들과 그 동물들을 하찮게 여기는 인간들의 싸움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작가는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동물들의 편이다. 그리고 작가는 전적으로 그 과정을 추체험함으로써,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속에 자리잡은 근원적인 자기존중감을 어린 독자들이 끌어안기를 기다린다.

물론 이 작품에도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교한 심리묘사로 말미암아 어린 독자들의 정서적 몰입을 방해한다거나 어린 독자의 눈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징들과 서사의 비약이 더러 등장함으로써 동화의 명료함을 밀쳐둘 때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집을 읽노라면 우리 동화의 지평이 한결 넓고 깊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설익은 교훈이나 비현실적인 환상이 아니라, 튼튼하게 현실에 뿌리박은 살아있는 삶의 계기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올해의 예술상' 시상식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상이 유지되지 못하리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재원이 부족해, 이어가기 힘들다는 주최측의 입장이었다. 나는 작가들의 자존심을 생각할 때, 비록 상금의 액수는 줄어들더라도, 공모제가 아닌 상들이 의연히 있어, 그 자존심이 모든 독자들의 보살핌을 받았으면 싶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김남중**



● 이 글을 쓴 김상욱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와 독서문화시민연대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시의 길을 여는 새벽 별 하나》, 《숨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어린이 문학의 재발견》 등이 있다.